

## 韓國의 歷代茶具에 關한 研究

李 慧 子

東南保健專門大學 女性教養科

(1993년 4월 7일 접수)

### A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Tea Utensils

Hye-Ja Lee

Department of Woman Trainment, The Dong Nam Medical Junior College

(Received April 7, 1993)

#### ABSTRAC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examples:)

1. The tea wares for hwarang were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appearing in Lu yu's ch'a ching as they were creatively developed by hwarang to suit outdoor use in their outdoor activities as a disciplinary training.

2. In analysis of Korea's traditional ceramics starting from koryo down to choson in its pattern, most Korean ceramics corresponded with the golden rule completely and the rest were quite close to it.

#### I. 緒 論

傳統茶道の 繼承과 發展을 위해서는茶具의 原形을 찾는 일이 茶道精神과 茶葉의 加工 利用法과 함께 茶文化의 중요한 部分을 차지한다. 그것은 世界의 茶文化 속에서 共通性과 獨自性을 찾아내어 우리의 傳統茶道を 밝히며 동시에 구분별하게 받아들이는 倭色茶道와 似以非 茶道を 排除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茶具에 대한 研究史는 매우 짧고, 傳統 遺物속에서 어느 것이茶具인가를 糾明하는 일부터 많은 研究課題와 問題點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學術論文과 一般發表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洪淳寬<sup>1)</sup>의 研究는 靑茶용 茶罐, 茶盞, 茶盞받침의 再現에 주력하였고, 金暎玉의 研究는 朝鮮시대 陶磁製茶具인 茶罐, 茶盞, 茶盞받침의 特性을 밝히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兪효수<sup>2)</sup>는 靑茶용 茶罐, 茶盞, 茶盞받침, 물식힘 그릇, 차항아리의 試製品生産에 置重하고 있으며, 金益寧<sup>3)</sup>의 研究는 靑茶용 茶罐의 디자인 및 제작에 局限되어 있다. 그리고 李一聲<sup>4)</sup>은 傳來茶具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傳統 陶磁器의 美를 밝히고 있다. 一般發表文은 全完吉<sup>5)</sup>의 研究로 渡日通信使의 紀行文과 燕行錄 등의 史料에 나타난 綠茶의 茶具와 太平洋博物館 所藏品을 茶具로 紹介하는 내용들이다.

茶具의 범위는 製茶道具와 煎茶道具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研究는 煎茶道具에 局限한다.

그리고 關係文獻과 遺物을 中心으로 우리 선조들이 마신 차의 茶具를 最大限 밝혀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傳統茶具의 原形保存과 繼承發展에 必要한 資料로 삼고자 한다.

## II. 本 論

### 1. 特殊用語의 定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茶文化에 대한 전반적인 用語의 定義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 茶事에 대한 特殊用語를 定義하면 다음과 같다.

#### 가. 芽茶

芽茶는 제품의 모양에서 葉茶, 散茶와 같다.

#### 나. 撮泡用 茶具

잔속에 바로 茶葉을 집어 넣고 물을 넣는 蓋碗茶具로 茶香氣의 放散을 막기 위한 잔이다. 이것은 一人用으로 주로 木香 梅花 柚子花 등이 흙작된 花茶에 사용되며 茉莉花茶가 대표적이다.

#### 다. 煮茶法

餅茶를 달이는 법으로 陸羽의 『茶經』의 五之煮를 기준으로 한다.<sup>1)</sup>

#### 라. 點茶法

中國의 宋과 高麗때盛行된 研膏茶인 末茶를 달이는 법으로 徽宗의 『大觀茶論』의 차 달이기(點)와 蔡襄의 『茶錄』의 點茶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마. 泡茶法

明나라 張源의 『茶錄』<sup>2)</sup>과 鍾衣禪師의 『茶神傳』<sup>3)</sup>의 芽茶를 달이는 泡法을 기준으로 삼는다.

### 2. 三國時代

高句麗, 百濟, 新羅는 中國文物의 傳來와 함께 茶文化도 흔히 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 飲用된 茶는 餅茶였고, 煮茶法에 의해 茶가 만들어졌다.

茶具는 경주 안압지에서 발굴 조사된 土器盃<sup>4)</sup>와 옛

무리굽 靑磁 찻주발 등이 남아 있다.

### 가. 茶의 種類

#### (1) 高句麗茶와 百濟茶

高句麗는 茶나무가 자랄 수 없는 추운 지방이지만 地理的으로 中國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茶文化이 일찍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를 마시는 傳說이 있는 수나라와 國交가 있었고, 제17代 소수림왕 2년(372) 前秦의 王인 苻堅이 順道라는 스님을 통해 佛教가 전하였을 때 무건왕과 싸워 이긴 東晉의 대장인 謝石(320~85)의 茶이야기가 陸羽의 『茶經』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佛教傳來에 의한 茶禮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류왕 7년(393) 唐나라 고조가 『道德經』을 보내면서 道教가 전래되었을 때 茶를 不老長生の 靈藥으로 여겼던 道家에서는 茶를 즐겨 마셨다고 볼 수 있다.

百濟는 戒律이 엄격한 律宗과 禪宗이 盛行되고 新羅의 경우처럼 彌勒下生思想을 믿는 신도들은 茶供養을 올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新羅茶

新羅와 唐은 유학생과 物物交換이 빈번하면서 茶文化이 많이 傳承되었다.

崔致遠(857~?)이 지은 雙溪寺의 眞鑑禪師碑銘에는 「復有漢茗爲供者則以新石釜」<sup>5)</sup>의 글에서 龍鳳茗團에서와 같이 團茶名으로 볼 수 있다.

諸岡 存(1879~1946)은 「朝鮮에는 陸羽의 『茶經』에 나오는 抹茶法이 傳해졌다」고 쓰고 있는데 『茶經』에 나오는 抹茶法은 蒸膏法으로 만들어진 餅茶를 뜻한다.<sup>6)</sup>

中尾萬三(1882~1936)은 1925년 陶磁器 研究로 왔다가 全南 康津郡 長嶺面 竹川里에서 직경 1寸 5分 가량의 一文錢의 錢茶를 목격하고 「이 茶야말로 『茶經』에 나오는 唐代의 茶」라고 말하였다.<sup>7)</sup>

稻葉岩吉(1876~1940)은 「朝鮮의 茶」에서 「半島에 殘存하는 圓形茶인 靑苔錢이야말로 唐代의 圓形인 最古의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다.<sup>8)</sup>

唐代에는 末茶와 葉茶의 記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新羅時代부터 傳承되어온 錢茶와 靑苔錢은 唐代의 餅茶의 遺來로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다.

나. 煮茶法

(1) 餅茶

(가) 가루 만들기

떡차 불에 쪄어 굽기 → 종이주머니에 넣어 향기 발산방지 → 나무연으로 가루내기 → 비단체로 치기 → 차함에 담기

(나) 차 달이기

• 첫번째 끓을 때 (魚目) 소금을 끓는 물에 넣는다.

• 두번째 끓을때 (連珠) 끓는 물을 표주박으로 떠내어 불그릇에 식힌다.

끓는 물을 휘저으면서 가루차를 중심에 넣는다 (물 1홉 : 가루차 3.75g의 비율).

• 세번째 끓음 (騰波鼓浪) 직전에 식혀 놓은 물을 다시 넣어 끓는 불의 세력을 가라 앉으면 가루차가 3층으로 형성된다.

술바닥에 남은 것을 銚이라 하고, 중간을 沫, 상층을 花라고 식기전에 沫과 花를 마신다.

(2) 錢茶

- 돈차 1~3개를 불에 쪄어 노랗게 굽는다.
- 불에 쪄 돈차를 湯罐의 끓는 물에 넣어서 차의 성분을 우려 낸다.
- 차와 불이 융합되면 따라 마신다.

다.茶具

(1) 文獻

(가) 中國

陸羽의 「茶經」의 四之器에 보면茶具를 25개로 구

분하고 있다.

風爐[灰承], 宮, 炭槌, 火筴, 鍤, 交床, 筴, 紙囊, 碾[拂末], 羅[合], 則, 水方, 籠水囊, 瓢, 竹筴, 鑿篋[揭], 熟盂, 銚, 畚, 札, 滌方, 滓方, 巾, 具列, 都監<sup>16)</sup>.

(나) 新羅

• 花郎의 미니형茶具

『三國遺事』의 「景德王과 忠談師」조에서 보이는 빗나무통에 담긴<sup>17)</sup>茶具는 移動할 수 있는 미니형茶具로 볼 수 있다.

高麗의 李穀(1298~1351)이 지은 『東遊記』에서 「江陵의 한송정에서 新羅四仙(永郎, 速郎, 南郎, 安祥)이 茶를 달이던 돌부두막·돌뿔·돌우불을 보았다」고<sup>18)</sup> 하였다.

李齊賢(1298~1367)은 『妙蓮寺石池菴記』에서 개성 묘련사에 있던 新羅花郎의茶具의 모양과 크기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나는 사방을 화처럼 닮아 두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두개를 과서 불 담는 곳과 그릇 씻는 곳으로 만들었다」<sup>19)</sup>.

• 雙溪亭의 돌솥

崔致遠(857~ )이 지은 眞鑑國師碑石文에 「石釜」가 보인다.<sup>20)</sup>

(2) 遺物

(가) 안암지 토器 찾사발

1975년 2년 동안 실시된 慶州 雁鴨池 발굴조사에서 「眞言茶」 명글씨가 명문된 토기잔이 출토되었다<sup>21)</sup>.

(나) 햇부리굽 靑磁

10C. 햇부리굽 청자



1992년 11월 정해전에서 발굴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 원주요계의 底部片(그림 1·2)과 신라 햇부리굽 靑磁底部片(그림 3)

1992년 12月 將島에서 발굴조사 한 張保阜 (~846)의 淸海鎮 遺跡 確認 調査<sup>21)</sup>에서 中國 越州 窯系의 햇무리굽 靑磁 底部片과 함께 新羅의 햇무리 굽 靑磁로 추정되는 底部片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靑磁의 편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발굴인 동시에 越州窯의 靑磁 찻사발과 함께 新羅의 靑磁로도 圓形茶를 마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햇무리 굽 靑磁는 대부분이 靑類로 전남 강진, 전북 고창, 진안, 경기도 고양, 양주 등지에서 생산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터와 경주의 황용사터, 감은사터 등에서 출토되었다.

#### (다) 綠釉의 陶器

綠釉陶器의 遺物의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銀製托 蓋이 武寧王陵에서 출토된바 있으나 統一新羅期の 청동기에도 보이고 있는 「錄釉蓋과 托」이 있다<sup>23)</sup>.

#### (라) 한반도에서도 출토된 越州窯의 靑磁

##### • 靑磁鉢의 水注

고려의 옛무덤에서 출토되었다.

##### • 靑磁鉢

경주시의 拜里와 충남 부여의 부소산에서 출토되었고, 水注는 인천 부근서 출토되었다.

### 3. 高麗時代

高麗時代는 研膏茶와 茶葉을 우려 마시는 芽茶가 飲用되었다.

高麗의 研膏茶는 宋의 製茶法을 基準한 것이다. 研膏茶는 白色茶葉이나, 綠色茶葉으로 만들든지, 茶湯이 乳白色인 것은 시루에 찌낸 茶葉을 압축기로 짜내어 葉綠素를 제거했기 때문이다<sup>24)</sup>.

茶甌에 熟水와 末茶를 넣고 茶匙나 茶筴으로 擊拂하여 形成되는 것을 「乳花」라 부른다. 乳白色에 어울리는 靑磁盃이나 點釉盃을 이 時代의 대표적인 茶具로 볼 수 있다.

高麗末에는 韓脩(1333~1384)가 읊은 茶詩에 芽茶가 등장한다<sup>25)</sup>.

#### 가. 茶의 種類

##### (1) 國產茶

##### (가) 研膏茶

「腦原茶」는 龍腦香을 흡착시킨 着香茶로 崔承老

(989)의 장례식과 문종 3년(1049)에 80세 이상 國老에게 30각이 하사되었다.

「小茶」는 穀雨 직전에, 「大茶」는 入夏 전후에 曄小形茶葉을 따서 만든 研膏茶다.

「孺茶」는 권분해(1543~1591)가 『大東韻部郡王』에서 茶의 옛 일을 소개하는 가운데 孺茶가 나온다.

「紫筍茶」는 송광사 圓鑑國師(1226~1296)의 『山居』에, 「醞茶」는 『病中言志』의 茶偈에 나온다<sup>26)</sup>.

「曾坑茶」도 圓鑑國師가 金藏禪師에게 茶를 받고 사려한 茶偈에 등장한다.

「香茶」는 충렬왕 16년(1292)에 原나라에 보낸 일이 있으며, 「雀舌茶」는 이제현의 茶詩에 보인다<sup>27)</sup>.

「露芽茶」는 이승인 『茶室實周主事』와 高麗, 朝鮮 時代의 茶家들이 읊은 茶詩에 나온다.

##### (나) 芽茶

中國에서 葉茶를 마시기 시작한 起源에 대한 明確한 記錄은 없으나 宋나라의 蘇軾의 『物類相感志』에 芽茶가 보인다<sup>28)</sup>.

高麗에서 葉茶를 마신 史料는 명필이자 判厚德府 事를 지낸 韓脩(1333~1384)가 읊은 茶詩「嚴光大禪師寄惠芽茶」에 나온다.

##### (2) 中國茶

##### (가) 研膏茶

文宗의 第四子인 大覺國師의 文集에 「小茶」一百斤이 직히 있는데 中國의 研膏茶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29)</sup>.

「雙角龍茶」는 北宋의 휘종황제(1101~1125재위)의 하사품과 南宋의 周輝가 지은 『淸波雜誌』에 나온다.

「蠟茶」는 南宋의 程大昌이 지은 『演繁路續集』과 『宣和奉使高麗圖經』에도 蠟茶와 龍鳳團茶가 宋나라 조정의 공식 선물이었다.

「龍鳳團茶」는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sup>30)</sup>과 宋나라 신종때(원봉元年 1078) 安壽와 陳睦이 10 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

##### 나. 點茶法

蔡襄의 『茶錄』에서는 點茶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1)</sup>.

차답기(炙茶) → 맷돌에 갈기(碾茶) → 체치기(羅茶) → 끓는 물 살피기(候湯) → 잔데우기(燴蓋) → 차달이기(點茶)

차달이기(點茶)

• 끓는 물이湧泉連珠(3단계)일 때 표주박으로 떠서 잔에 차가루를 넣은 후에 물을 붓는다.

• 황금·은·쇠로 만든茶匙로 저어 마셨고, 蔡襄의『茶錄』의茶筴은北宋의(徽宗皇帝의『大觀茶論』)과(韓駒의『謝人寄茶筴子』)으로 竺師는(審安老人의『茶具圖贊』) 등으로 변천되면서 사용되었다.

다. 泡茶法

茶葉을 달여 마시는沙靑綠茶의撮泡法은南宋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趙希鵠의『調變類編』(1240년경)茶葉의泡茶의 쓰이는砂壺와茶葉을保管하는錫瓶이 보인다<sup>32)</sup>.

라. 茶具

(1) 點茶用

(가) 中國

中國의 點茶用 茶具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蔡襄의『茶錄』: 茶焙(차배로), 茶籠(차바구니), 茶鈴(차집게), 砧惟(방망이), 茶碾(차맷돌), 茶羅(차체), 茶盞(차잔), 茶匙(차숟), 湯瓶(탕병)<sup>33)</sup>.

② 徽宗의『大觀茶論』: 羅, 碾, 盞, 筴(차술), 餅(병), 杓(구기)<sup>34)</sup>.

③ 審安老人의『茶具圖贊』: 韋鴻臚, 木待制, 金法曹, 石轉運, 胡員外, 羅樞密(그림-1), 宗從事, 漆雕秘閣, 陶寶文(그림-2) 湯提點, 竺副師(그림-3), 司職方<sup>35)</sup>.

(나) 高麗

① 徐兢의『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茶具에 대한 글귀는 다음과 같다.

「故邇來頗喜飲茶益治茶具 金花烏蓋 翡色小甌, 銀爐, 湯鼎, 皆切校中國茶矣」<sup>36)</sup>.

② 新羅花郎의茶具遺物

李穀(1298~1351)의『東遊記』에서 新羅茶具로 전하는 遺物중에서 경포대의 돌부뚜막과 寒松享의石甌, 石池, 石井을 적고 있고<sup>37)</sup>, 李穡은 묘연사의 돌못, 돌부뚜막에 대한「題益齋先生妙蓮寺趙順菴石池甌記後」의 詩로 記錄을 남겼다<sup>38)</sup>. 李齊賢(1287~1367)은「妙蓮寺石池甌記」에서 順菴法師의 증언에 따르면 妙蓮寺의 돌못과 돌부뚜막은 寒松享의茶具와 같다고 쓰고 있다<sup>39)</sup>.

③ 文獻綜合

文獻에 나타난茶具를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2) 泡茶用

高麗의茶鍾

李穡(1328~1396)의 詩에는 李友諒으로 부터 차종을 받은 대목은 다음과 같다<sup>40)</sup>

「得閱平安喜己多 茶鍾照目使無邪」

차종에 대해서는 淸나라 朱琰이『陶說』에서 宋나라 李南金의 詩에 보이는 綠瓷의 잔이 茶鍾의 기원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密樞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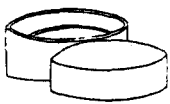


그림 1

文寶陶



그림 2

師副竺



그림 3

그림 2.

表 1.

다 구	문 헌 · 단 거
차 술 (茶鑪)	李穡 <sup>40)</sup> 「茶後小詠」詩
돌 술 (石鼎)	李奎報 <sup>41)</sup> 「暫遊感佛寺贈堂頭老比丘」詩, 鄭夢周 <sup>42)</sup> 「石鼎煎茶」詩
돌 냄비 (石鉢)	圓鑑國師「病中獨坐書懷」 <sup>43)</sup> 茶偈
질화로 (互爐)	
탕 관 (茶餅)	李崇仁 <sup>44)</sup> 「題神孝寺洪師房」詩, 圓鑑國師「山中樂」詩
차 상자 (茶奩)	鄭 摠「盛鳳團於茶奩」詩
차 사발 (茶甌)	金克己 <sup>45)</sup> 「龍藏寺」詩, 洪奎「五言絕句」詩
오지사발 (甌甌)	圓鑑國師「閑中偶書」茶偈, 李齊賢 <sup>46)</sup> 「松廣和尚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詩
꽃 사발 (花甌)	金克己 경주 황용사에서 읊은「花甌浮白乳」詩句 李奎報「孺茶詩」
차 상자 (茶箱)	李奎報「苦雨歌」
차 맷돌 (茶磨)	李仁老 <sup>47)</sup> 「僧院茶磨」詩, 李奎報「謝人贈茶磨」詩
차부뚜막 (茶竈)	金克己「茶竈今落荒倉苔」詩句, 鄭夢周「역경읽기」
벽돌화로 (甌爐)	圓鑑國師「丁丑三月十三日遊眞覺寺」詩
벽돌화로 (塼爐)	李奎報「塼爐活火詩自煎」詩句
쇠 병 (鐵瓶)	李奎報「得南人所餉鐵瓶試茶」詩
차아궁이 (茶因)	坪郊茶所에서 通度寺에 바치던茶具 <sup>48)</sup>
차 술 (茶笏)	李 漢「星湖僿說」의 茶食俎, 宋翼弼「龜峰集」
꽃 사발 (花甌)	李 穡「前茶卽事」
차 종 (茶鍾)	李 穡「得堂弟李友諒書及茶鍾一雙」詩

#### 4. 朝鮮時代

朝鮮時代는 三國時代의 餅茶, 高麗時代의 研膏茶가 傳承되고 있으나 麗末에 나온 芽茶가 盛行되고, 中國에서 花茶, 黃茶, 黑茶, 靑茶등의 많은 茶가 들어온다.

茶具는 葉茶에 어울리는 白磁와 靑草白磁의 茶罐과 茶鍾, 瓶 등이 사용된다.

##### 가. 茶의 種類

###### (1) 國產茶

###### (가) 餅茶

茶山 丁若鏞과 弟子들이 함께 制定한 「茶信契節目」(1818)의 約條에 다음과 같이 餅茶가 보인다<sup>49)</sup>.

「임하 전에 늦차를 따서 떡차는 두근을 만든다.」

詩書畫의 三絶로 有名한 申緯(1769~1847)도 龍脊茶餅과 寶林白芽茶餅을 선사 받고 남긴 茶詩에 있다<sup>50)</sup>.

###### (나) 研膏茶

研膏茶는 智異山과 慶州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있었는데 慶尙道 觀察使를 지낸 河演(1376~1454)은 「金屑玉糜前更好」라는 詩句에서 智異山에서 만든 臘前茶를 茶磨에 갈아서 달여 바친 기록이다<sup>51)</sup>.

許琛(1444~1505)은 小龍團茶를 다리는 詩를 남겼다.

申湜(1551~1623)의 「家禮諺解」(1632)에 의한 末茶의 點茶法은 朝鮮後期까지 이어졌다.

1662年 12月 對馬州太字인 요시 사네 (宗義眞)은

예조참의에게 외교문서와 함께 點茶行廚 한 벌을 보내왔다.

니콜라스 뷔트센 (Nicholas, 1641~1717)의 기행문인 『朝鮮國記』에도 말차 기록이 있고, 丁若鏞은 「碾研法依蔡手」라는 詩句에 남기고 있다.

#### (다) 芽茶

「雀舌茶」는 丁若鏞의 「春日棗泉雜詩」에 등장한다.

「天地茶」는 丁卯胡亂(1627년)후 3회에 걸쳐서 天地茶 10封과 雀舌茶 50封이 예물로 보냈다.

「龍茶」는 許筠(1569~1618)의 「焦坑方熟試龍茶」의 詩句에 보인다<sup>52)</sup>.

「竹露茶」는 『朝鮮佛教通史』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김해의 백월산에는 죽목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 전한다<sup>53)</sup>」.

「蕾笑茶」는 白坡居士 申獻求(1823~?)의 「滿鍾蕾笑可延年」라는 詩句에 나온다.

「黃梅茶」는 崔永年の 『海東竹枝』에 「朝鮮所產黃梅香片 以後第一品」라는 기록에서 黃梅의 茶名이 보인다<sup>54)</sup>.

빙허각 李氏夫人(1759~1824)는 「규합총서」에서 黃茶에 依한 染色法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타식황다는 고련근을 날여빅저포에드리면빚이 고은되겠다.<sup>55)</sup>」

「白雲三版茶」는 전남 강진군 옥관면에서 李漢永(1936)씨가 만든 茶이름 이다<sup>56)</sup>.

#### (2) 外國茶

「香片茶」는 洪淳學이 「燕行歌」에서 「형편다와 작설차와 고아만든 향고다며」의 詩句에 등장하는 香片茶는 中國茶이며<sup>57)</sup>, 崔永年の 「竹露茶」詩에는 우리나라에서 生産된 香片茶다.

「普洱茶」는 正祖大왕의 駙馬部尉인 洪顯周(1793~1865)의 「普洱茶膏月團榻」라는 詩句에 나온다<sup>58)</sup>.

### 나. 煎茶法

#### (1) 餅茶의 淹茶法

諸岡 存은 『朝鮮의 茶와 禪』에서 전남 강진 근처

에서 劉戴義가 「靑苔錢」를 달이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차 2~3개를 숯불에 구워서 3홉의 물에 넣고 2~3분간 끓여서 마신다」.

#### (2) 葉綠茶의 泡茶法

##### (가) 불 살피기 (火候)

許次紆는 『茶疏』에서 불은 굳은 숯을 (堅木炭)을 으뜸으로 삼으며 빨강계 태워서 연기와 불꽃을 없게 하여 화력을 사납게 할 때가 최상이라고 하였다<sup>59)</sup>.

##### (나) 끓는물 살피기 (湯候)

明나라 張源은 『茶錄』에서 「未熟則沫浮 過熟則茶沉」라고 하면서 끓는 물 살피기가 가장 어렵다고 쓰고 있다.

물의 모양을 보고 분별하기는 蟹眼→蝦眼→魚眼→連珠까지는 萌湯으로 보고 騰波鼓浪의 純熟으로 끓여 사용한다<sup>60)</sup>

##### (나) 茶罐 데우기 (豫溫)

湯罐의 물을 茶罐에 부으면 차가운 기운이 가져차와 물의 융합이 촉진된다(겨울에 한함)

##### (라) 차 집어 넣기 (投茶法)

明나라 徐渭의 『煎茶七類』와 許次紆의 『茶疏』에서는 차잎의 많고 적음을 짐작하여 중정을 잃지 않고 넣는 中投法을 택하고 있다.

찰단지에서 茶를 덜어서 茶罐에 넣는 방법은 明나라의 許次紆는 『茶疏』에서 맨손으로 집어 넣었고 淸나라의 유원장은 『다사』에서 굳은종이나 댓쪽의 차 뜨개로 옮겼고, 朝鮮은 茶匙를 사용했다.

##### (마) 우려내는 시간 (浸出時間)

시계가 없던 시대여서 『茶疏』에서 사용한 呼吸法은 다음과 같다.

「茶罐에 물을 넣고 茶을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세번 숨을 쉬는 동안 기다린다. 盞에 다시 딸았다가 기둥 茶罐에 붓는다. 다시 세번 숨쉬고 뜨는 앞이 가라 앉은 후에 찻잔에 따른다」.

##### (바) 차 마시기 (飲茶)

『茶疏』와 淸나라 유원장의 『다사』에는 再巡까지가 적당하다고 적고 있다.

茶罐의 茶는 三泡까지 우려낼 수 있으나 再泡가 적당하다.

##### (사) 차 따르기

차물은 中庸을 지키면서 따라야 하는데 천천히 따르거나 급히 따르는 것은 좋지 않으며 中庸을 지키는 데는 속달이 필요하다.

### (3) 花香茶의 撮泡法

蓋杯는 뚜껑이 달린 찻잔겸 1人用 茶罐으로 茶를 간편하게 우려마실 수 있는 찻그릇이다.

찻잔에 끓는 물을 부어 데운 다음 차를 듬뿍 넣고 끓는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덮는다.

약 2~3분 지나서 차잎이 찻잔 바닥에 가라 앉으면 뚜껑을 열고 옷물만 마신다.

## 鍾茶玉



신친의례』에서)

그림 3. 撮泡用 茶具

### (4) 普洱茶의 泡茶法

10g 정도의 차잎을 茶罐에 넣고 뜨거운 물 500g 정도를 부은 다음 5분 뒤에 찻잔에 따라 마신다.

## 다. 茶具

### (1) 淹茶用

諸岡 存의 『朝鮮의 茶와 禪』에서 餅茶인 靑苔錢을 달이던 湯罐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손잡이는 빨처럼 나오고 붉은 초벌구이에 찻불을 입힌 것으로 주둥이 세치 네푼(10.3cm),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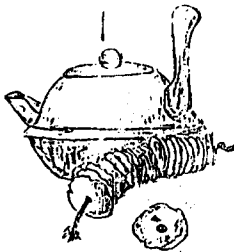


그림 4. 靑苔錢과 茶罐

1939년 전라남도 강진의 유대의 씨가 사용하던 것.

네치 엇푼(13.9cm), 복판이 지름이 닷푼(1.5cm)쯤 이다」<sup>61)</sup>.

### (2) 泡茶法

#### (가) 中國

##### ① 屠隆『茶箋』의 茶具

明나라 屠隆은 『茶箋』에서 茶具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苦節君, 建城, 湘筠焙, 雲屯, 烏府, 水曹鳴泉, 品司, 沉垢, 分盈, 執權, 合香, 歸潔, 漉塵, 商象, 遞火, 降紅, 團風, 靜沸, 運鋒, 啜香, 撥雲, 甘鈍, 納敬, 易持, 受汚<sup>62)</sup>.

##### ② 許次紆『茶疏』의 茶具

㉠「貯水」는 오래된 목이 좋다.

㉡「舀水」는 반드시 瓷甌를 사용하며 물을 떠 때는 불이 독안에서 똑똑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火候」는 堅木炭이 으뜸이다.

㉣「烹點」은 茶와 끓는 물을 부은 후 三呼吸의 숨 쉬기로 茶달이는 시간에 이용한다.

㉤「秤量」에서 茶注는 작은 것이 알맞고 반되까지가 적당하며 茶는 닷푼이 알맞은 분량이다.

㉥「湯候」에서 물은 급히 끓여야 마땅하고 蟹眼뒤의 물결치는 때가 알맞은 시기다.

㉦「甌注」에서 甌는 옛날에는 建窯의 토기甌를 사발을 선호했는데, 오늘날은 순수한 흰 빛깔과 작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定窯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注는 銀이 첫째고 주석이 버금간다. 유약을 바른 사기 찻병도 좋다.

㉧「湯滌」에서 湯銚, 甌, 注는 건조하고 정결하게 한다. 새벽에 일어나면 흔들어 씻고 삼배 행주로 닦아 낸다.

㉨「飲啜」은 한병의 차는 다만 두번 돌리는데 첫번째 잔은 鮮美하고 두번째 잔은 甘醇하고 세번째 잔은 마실 意欲이 없어진다.<sup>63)</sup>

### (3) 成虞의 『茶具六事分封』

明나라 成虞의 茶具는 다음과 같다.

苦節君行省, 建成, 雲屯, 烏府, 水曹, 器局, 品司<sup>64)</sup>.

#### (1) 朝廷의 茶具

朝廷에서 사용한 茶具는 表 2와 같다.



表 2

다 구	문 헌
進上茶瓶	『承政院日記』 <sup>65)</sup>
茶鍾, 茶罐, 點茶器, 點茶鍾	『分院磁器賣所節目』
前茶具, 銅茶罐, 茶匙, 銀器	『世宗實錄』
茶瓶, 茶鍾, 茶鍾盤	『國朝五禮儀』와 『世宗實錄』
茶甫兒(차보시기)	『通文館志』 <sup>66)</sup>
茶盤, 茶鍾	『탁지부령 제19호(1906년 10월 19일)』
苦茗器	『學部來去案』
銅茶罐, 茶巾, 茶衣	『駐英公館計物目錄』
銀茶罐, 銀茶鍾, 玉茶鍾, 茶亭	『進饌儀軌』
金茶罐	『大韓季年史』
茶匙, 茶鍾, 茶甫兒, 茶白瓶	『迎接都監宴享膳錄』

表 3.

다 구	문 헌 근 기
차 솥(茶鑪)	金時習「憩絶澗中盤石」詩 <sup>67)</sup>
차 솥(茶鼎)	金時習「煎茶」詩, 徐敬德「次次教授見贈韻」詩 <sup>68)</sup>
차화로(茶爐)	丁若鏞「四景」詩
차부뚜막(茶竈)	
죽 로(竹爐)	金正喜「竹爐之室」회호, 「史道詩」
은 병(銀瓶)	丁若鏞「興猶堂全書」
차 병(茶瓶)	丁若鏞「松風樓雜詩」 <sup>69)</sup>
료주박(瓢)	鄭希良「夜坐煎茶」詩, 丁若鏞「藥泉」詩
주 발(椀)	함허화상「진상화상을 위한 헌향 헌차수어」
차화로(茶爐)	草衣禪師「奉和西山」十二首 <sup>71)</sup> , 柳得恭「南江謠」詩 <sup>70)</sup>
차주발(茶椀)	梵海禪師「四五六椀徹汁泚」詩句 <sup>72)</sup> 申綠「秋懷」詩 <sup>73)</sup>
차상자(茶床)	金正喜「阮堂先生全集」 <sup>74)</sup> , 洪顯周「臘雪水烹茶」詩 <sup>75)</sup>
와 관(瓦罐)	梵海禪師『빈해해선사유고』
자 완(瓷盤)	
철 관(鐵罐)	金時習「與日東僧俊長老話」詩
철탕관(鐵湯罐)	河演「謝友人送水鐵湯罐」詩 <sup>76)</sup>
땅화로(地爐)	金時習「地爐」詩
차풍로(茶風爐)	金命喜「急向風爐瀹茶芽」 <sup>75)</sup> 詩句, 金弘道「試茗圖」 金弘道「郡賢圖」, 金弘道「선면아집도」李寅文「童仙」 <sup>76)</sup> , 李寅文「樓閣雅集圖」 <sup>77)</sup> , 李義養「春宵雅集」 <sup>78)</sup> , 李昉運「芭蕉高士圖」, 李命基「松下讀書圖」 <sup>80)</sup> , 李在寬「午睡睡圖」 <sup>81)</sup>

## (2) 民間의茶具

① 茶詩와 기타 文獻에 등장하는茶具는 表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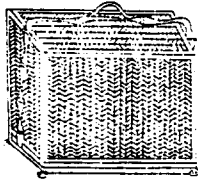


그림 5. 器 局

## ② 화엄사의 소장茶具

화엄사에서 사용하던 찻그릇, 찻잔받침 다식판이 있고, 절의 밭에서 발굴된 찻잔, 받침(茶托) 2개와 찻단지 1개는 고려 청자였다<sup>82)</sup>.

은 조금 평평한 것(높이 두치 이하), 지름(네치썸), 중간 높이(높이 두치 닷푼, 짙 세, 네치썸), 높은 것(높이 세치 닷푼, 지름 네치썸) 등 여러가지가 있다<sup>83)</sup>.

## (3) 撮泡用

## (가) 中國

撮泡用 蓋碗茶具를 사용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田藝蘅의 『煮泉小品』

「生曬茶淪之甌中 則旗槍舒暢 清翠鮮明 尤爲可愛」<sup>84)</sup>

「생잎을 햇빛에 쬐어 말린 차를 사발 속에서 우려 내면 찻잎과 짙이 천천히 퍼져서 맑은 푸르름이 선명하여 더욱 즐길만하다.

## ② 許次紓의 『茶疏』

「杭俗喜于盃中撮點 故貴極細」<sup>85)</sup>

「항주의 풍속은 잔 속에 곧장 차잎을 집어 넣고 물붓기를 즐기며 매우가는 차를 귀하게 이긴다.」

## (나) 朝鮮

## (1) 進饌儀軌

『進饌儀軌』에 나오는 「玉茶鍾」과 내만에 所藏된 淸代의 「翠玉蓋碗」<sup>86)</sup>은 材質과 形態가 같은 花茶專用茶品이다.

## (4) 陶磁製茶具의 黃金比

高麗부터 朝鮮時代까지의 陶磁器를 유형별로 數學的 作圖에 의해, 黃金比 適用 分析한 結果, 黃金比와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 大部分이었다. 그 以外의 陶磁器의 分析結果도 黃金比와 近似하게 適用된 것이 많았다.

黃金比의 正確한 數値는  $(1+\sqrt{5})/2$  이며 近似値는 1.618의 無理數로써, 線分과 다른 線分이 일정한 비율 1.618를 유지할 때를 黃金比라 한다.

우리傳統茶具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陶磁器들이 이렇게 黃金比에 맞는 것으로 茶器의 完全美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7)</sup>.

## III. 結 論

韓國의 歷代茶具를 考察한 끝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가. 茶文化의 連動

茶具의 形態를 決定짓는 茶의 種類는 唐代의 餅茶, 宋代의 研膏茶, 明代의 芽茶가 傳來됨에 따라서 三國時代의 餅茶, 高麗時代의 研膏茶, 朝鮮時代의 芽茶로 變遷되었다.

## 나. 獨創의인茶具

우리茶具가 外勢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1) 花郎의 野外用茶具

新羅의 花郎들은 修行要目과 山川遊娛에 맞는 野外用茶具를 使用하였다.

江陵 景福대의 차부두막과 한송정 및 개성의 妙蓮亭에 있었던 돌부두막, 돌못, 돌우물등은 固定式茶具였다.

忠談스님이茶具를 닦아서 돌리메고 다닌 밧나무등은 (三國遺事) 翫대용茶具다.

이러한茶具들은 같은 時代의 中國에서 사용된 『茶經』의茶具와는 다른 獨創의인 것이다.

## (2) 高麗靑磁의 象嵌技法

이 당시까지는 陶磁史에서 象嵌技法을 사용한 것이 靑磁가 有一한 것이며 象嵌文樣의 표출을 위해서

靑磁釉의 투명도가 추구되었고, 이러한 結果로 만들어진 맑고 투명한 靑磁빛은 象嵌技法과 함께 高麗磁器를 대표한다.

宋나라의 太平老人은 高麗靑磁를 『神中錦』<sup>30)</sup>에서 「天下第一」이라고 평가하였고, 우찌야마(內山省三)는 『朝鮮陶磁鑑賞』에서 「東洋精神」의 極致라고 표현한다.

徐兢은 『高麗圖經』에서 靑磁의 작은 사발을 「翡色小甌」로 金花黑釉잔을 「金花烏蓋」으로 적고 있다.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 「高麗靑磁象嵌金彩牡丹文 대접」<sup>31)</sup>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金花黑釉사발의 제작도 가능하였으리라 본다.

### (3) 陶磁製茶具의 黃金比

傳統陶磁器를 分析한 研究結果에 따르면 黃金比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黃金比와 近似值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다. 模倣茶具

新羅花郎의 야외용茶具와 高麗의 象嵌靑磁빛 李奎報의 茶詩에 생황소리가 나는 쇠빙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茶具는 模倣品이다.

### (1) 新羅의 靑磁茶碗

淸海鎮 遺跡地 발굴조사에서 越州窯의 靑磁碗底部片이 발굴된 것은 越州窯의 靑磁碗이 新羅茶碗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新羅時代에 떡차를 달여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2) 高麗의 靑磁 빛 黑釉茶碗

宋나라의 徐兢은 『高麗圖經』의 茶俎에서 金花烏蓋, 翡色小甌, 金爐, 湯鼎은 모두 중국제도를 본받았다』고 지적하였다.

金花烏蓋의 기법은 河北省 定窯에 傳來된 金花黑定の 기법이고, 翡色小甌도 초기에는 浙江성의 越州窯, 화북의 耀州窯 定窯의 技法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暗綠靑色の 靑磁技法으로 高麗의 獨創의인 象嵌靑磁로 發展하게 된다.

### (3) 朝鮮時代의 白磁茶鍾

朝鮮時代에는 中國의 경우처럼 白磁茶鍾이나 靑華白磁茶鍾이 사용되었다. 특히 靑茶를 우려마시는 「靑華白磁茶瓶」<sup>32)</sup>은 대만의 「蓋碗紫砂」<sup>33)</sup> (高 8.5cm)와 모양이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정에서 儀式에 사용한 『進饌儀軌』의 옥돌차종은 대만 故宮博物館에 소장된 翠玉蓋碗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茶具들은 모두 靑茶나 花茶인 香片茶를 撮泡法으로 우려 마실 때 사용되던 것이다.

## 라. 傳承茶具의 再現

오늘날 傳承茶具의 再現은 시급하면서 어려운 課題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을 바탕으로 實物을 찾아내는 일과 記錄이 미비되었거나 損失된 遺物을 어떤 기준으로 再現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茶의 原產地인 中國의 茶와茶具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므로 損失되거나 특히 밝힐 수 없는茶具는 中國遺物들을 基準으로 製作함이 有望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주석단지나 瓦罐, 『茶具圖贊』의 韋鴻臚, 木待制, 金法曹, 宗從事, 『茶具之事分封』의 筭節君像, 建城, 烏府, 水曹, 器局, 品司등을 들 수 있다.

## 마. 倭色茶具의 挑除

우리나라 茶文化에는 倭色文化가 많이 浸透되어 있다.

지금까지 文獻에 나타난 傳統茶具들 외에 좀 더 밝혀져야 할 研究課題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文獻에 사용한 記錄이 나타나지 않는茶具로써, 現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茶具들의 一部分은 日本茶具의 模倣이거나 再現된 製品이다. 특히 우리 傳統陶磁器의 技法이 무시된 茶盃와 茶鍾등의 倭色茶具들은 시급히 挑除되어야 한다.

日本茶具의 模倣과 使用은 곧 부분별하게 받아들이는 日本茶文化의 流入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 IV. 參考文獻

1. 洪淳寬, 韓國茶具에 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1978.
2. 金映玉, 朝鮮朝 陶磁茶器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2

3. 유호수, 陶磁製 茶器 開發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1984.
4. 金益寧, 茶器디자인考, 「造形論叢」 第1輯 143~145, 1981.
5. 李一聲, 韓國 傳統 陶磁器 形態의 黃金比에 依한 分析,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1979.
6. 全完吉, 한국의 차문화와 차도구, 「디자인」, 46~49, 1981
- \* 全完吉, 茶器·茶事概說, 「月刊 文化財」, 36~42, 1988,3
- \* 全完吉, 茶具의 歷史의 考察과 普及方案에 대한 檢討, 「茶文化세미나 發表要旨」, 33~45, 1983,7
- \* 全完吉, 茶具 정립을 위한 私見, 전통문화 54~56, 1985,8
- \* 全完吉, 한국의 茶文化의 茶具, 第8回 學術講演會 韓國의 茶, 1~2, 1987
- \* 全完吉, 韓國의 茶文化와 茶具,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서울, 1987
7. 金明培, 韓國의 茶書, 探求堂, 서울 140, 1986
8. 金明培, 中國의 茶道, 明文堂, 서울 140, 1986
9. 上揭書, 112
- 10~11. 金明培, 中國茶道, 465, 171
12. 中樞院(編),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府, 京城, 70, 1919
13. 諸岡存, 家入一雄, 朝鮮의 茶と禪, 日本의 茶道社, 東京, 55, 1940
14. 中尾萬三, 仁和寺御室物錄의 陶瓷, 大乘第十二卷八號, 22, 1933.
15. 稻葉岩吉, 朝鮮のお茶, 朝鮮總督府, 京成, 10, 1937
16. 金明培, 韓國의 茶書, 255
17. 一然, 三國遺物, 「景德王과 忠談師表訓大德」 組
18. 李穀, 東叟記, 稼亭文集, 卷5, 관동지방 기행문, 1349
19. 李齊賢, 益齋集,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1980.
20. 朝鮮金石總覽
21. 韓國의 美⑤ 土器, 中央日報社, 서울, 240, 1986
22. 朝鮮日報, 張保臯, 서울, 1992년 1월 17일.
23. 韓國의 美⑤, 土器, 235
24. 金明培, 中國의 茶書, 180~181
25. 韓脩, 柳巷集, 27.
26. 東國譯經院, 한글대장경, 159, 서울 214, 1977.
27. 李齊賢, 益齋亂藁, 卷四, 134~136.
28. 陳祖槩, 朱自抵, 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 北京, 248, 1979.
29. 文一平, 湖巖全集, 第二卷, 朝光社, 京城, 391, 1939.
30. 金明培, 中國의 茶書, 144
31. 上揭書, 104~107
32. 陳祖槩, 朱自振, 277
33. 金明培, 中國의 茶書, 112
34. 上揭書, 139
35. 朱小明, 茶史茶典, 世界文物出版社, 台北, 135~145, 1980.
36. 條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三十二의 茶俎
37. 李穀, 稼亭集
38. 李穡, 牧隱集
39. 李齊賢, 益齋亂藁
40. 李穡, 牧隱集
4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42. 鄭夢周, 圃隱集
43. 圓鑑國師, 圓鑑錄
44. 李榮仁, 陶隱集, 南鳳 祐譯, 1981
45. 李克己, 金居士集
46. 李齊賢, 益齋亂藁, 卷四
47. 李仁老, 破閑集 柳在泳譯, 一志社, 서울, 1987
48. 通度寺舍利袈裟略錄, 寺之四方山川禪補俎
49. 金明培, 韓國의 茶書, 13
50. 申緯, 賢修堂全藁, 卷三, 八面
51. 河演 敬齋先生文集, 卷一
52. 許筠, 惺所覆瓿藁, 翻譯陣譯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81
53.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編, 新文館, 京城, 461, 1918
54. 崔永年, 海東竹枝, 獎學社 京城, 23, 1925
55. 빙허각 李氏夫人, 근합총서, 56
56. 諸岡 存, 家入一雄, 朝鮮의 茶と禪, 日本의 茶道社, 東京, 1940.
- \* 金明培, 朝鮮의 茶와 禪 譯, 保林社, 서울,

- 267~274. 1991
57. 沈載完, 韓國古典文學大系, 敎文社, 서울 521, 1984
58. 洪顯周, 海居齋詩鈔 卷二
59. 金明培, 中國의 茶道, 314
60. 上揭書, 112
61. 金明培, 朝鮮의 茶와 禪譯, 234
62. 金明培, 中國의 茶道, 221~223
63. 上揭書, 292~300
64. 朱小明, 茶史茶典 前揭書, 153~161
65. 海剛陶磁美術館圖錄, 해강도자미술관, 서울, 96, 1990.
66. 金桔南, 金慶門, 通文館志
67. 金時習, 梅月堂集
68. 徐敬德, 花潭集
69. 丁若鏞, 輿猶堂全集
70. 柳得恭, 冷齋集
71. 草依禪師, 草衣集
72. 梵海禪師, 梵海禪師遺稿, 海南部 大興寺, 1921
73. 申緯, 賢修堂全藁
74.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私家版 京成, 1934
75. 草衣禪師, 草衣集, 22
76. 澗松文華, 第十八號, 韓國民族美術研究所, 三井文化印刷社, 6, 1980
77. 韓國의 美⑧ 山水畫(下), 中央日報, 서울, 73, 1986(國立中央博物館)
78. 澗松文華, 前揭書, 10
79. 韓國의 美⑧ 前揭書, 55, (서울 개인소장)
80. 上揭書, 92 (湖巖美術館)
81. 上揭書, 152 (湖巖美術館)
82. 金明培, 朝鮮의 茶와 禪譯, 335
83. 上揭書, 337
84. 金明培, 中國의 茶道, 272
85. 上揭書, 312
86. 國立故宮博物院(編), 「故宮玉選率」續集, 國立故宮博物院, 台北, 37, 1973.
87. 李一聲, 韓國傳統 陶磁器 形態의 黃金比에 衣한 分析, 6面, 35面
88. 韓致籟, 海東繹史
89. 韓國의 美④ 青磁, 149
90. 金明培, 韓半島의 茶道史 「茶道聚錦」第一卷, 小學館, 東京, 219, 1987
91. 劉漢介(編), 中國茶藝, 禮來出版社 桃園, 158, 1983